“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조를”

경실련, 시민에 당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오는 21일 광주에서 시행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실련은 13일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운영방식이 공공과 민간 협력체계로 바뀌면서 시민에게는 서비스 향상과 대중교통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경실련은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광주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전면적인 노선개편에 따라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대중교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생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학생 가혹 체벌·카바레 출입

품위 손상한 교사 해임 정당

법원, 前 전남 모 여고 교사 청구 기각

학생을 가혹하게 체벌하고 카바레에 출입하는 등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학교 측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을 낸 전 전남 모 여고 교사 박모(54)씨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교 측의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고 박씨의 행위 결과와 내용, 평소 소행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1,180여명 ‘수능 1등급’

수험생 중 6.5%…전국 평균의 1.6배

전남 1등급 비율 낮아 ‘도·농 학력차’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지역 수험생 중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에서 1등급을 차지한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의 1.6배에 이르는 등 ‘실력 광주’의 명성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 비해 표준점수 평균이 자연계는 16점, 인문계는 1.6점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수험생 가운데 6.5%가 언어·수리·외국어영역에서 1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인 4%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6.4%보다 0.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광주지역 수험생이 1만8천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1천180여 명이 1등급을 얻은 셈이다.

영역별로는 언어 가 7.09%, 수리 가 6.35%, 수리 나 6.37%, 외국어 6.06% 등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등급 이상 학생 비율도 16.7%로 지난해의 16.2%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하며 전국 평균인 11%를 크게 웃돌았다.

이와 함께 실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일선 고교 표준점수를 합산해 평균치를 낸 결과 지난해 수능에 비해 자연계는 16점, 인문계는 1.6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의 1등급 평균 비율이 전국보다 1.6배 높은 것은 학생중심수업과 교실수업 개선에 앞장선 교사들의 노력, 학생들의 학습을 적극 뒷받침한 학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언어영역 1등급 학생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독서와 논술교육에 역점을 두어온 교육청의 시책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결과”라며 “지난해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사회탐구·과학탐구 1등급 학생 비율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지역 수험생 중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각각 4.7%, 4.2%. 3.6% 등으로 각각 전국 평균인 5.4%, 4.2%. 4.7%보다 낮아 도시·농촌 간 학력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설 연휴 열차표 예매 2007년 설 연휴 기간(2월17일~2월19일) 호남선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3일, 광주역에는 이른 아침부터 표를 사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댔다. 남은 승차권은 14일 오후 1시부터 인터넷(www.korail.com 또는 www.qubi.com)과 역 창구에서 추가 예매할 수 있다. 한 사람당 최대 예약·예매량은 편도 6장(왕복 12장).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수능 성적 사전 공개 조사

대입전문기관인 청솔학원이 2007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2일 낮 홈페이지에 수능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를 올렸다가 삭제해 교육당국이 경위파악에 착수했다.

청솔학원 관계자는 13일 “경기와 대전,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 오전 수능성적표를 일선 학교에 교부했다”며 “이를 고교로부터 받은 뒤 분석을 해서 수능 원점수 및 표준점수, 도수분포 결과를 어제 낮 12시40분께 학원 홈페이지 공지란에 올려놓았는데 논란이 있어 1시간 가량 뒤 삭제했다”고 밝혔다.

수능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는 수험생 개별 성적이 아니라 전체의 성적 분포 등을 보여주는 25쪽짜리 자료로, 12일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13일 석간 엠바고(보도시점 자제 요청)’ 조건으로 미리 공개됐다. /연합뉴스

광주선도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630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래
062 367-9000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독자불만처리위원이 해결해 드립니다
02-722-1282 www.ikpec.or.kr

“딸 수능 실패, 내연男 5천만원 배상”

쌍나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52단독 견종철 판사는 12일 “아내를 유혹해 그 여파로 딸이 수능에 실패하고 재수하도록 한 데 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가 아내의 내연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B씨가 아내를 유혹해 가정을 떠나도록 함으로써 가정불화를 초래, 딸이 2005년 수능에서 실패해 재수하게 됐고 이후 작은딸도 고3 수험생으로서 중요한 시기에 방황하게 됐다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원인을 그대로 인정.

○…큰딸은 어머니의 휴대전화기에 B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고 외도를 눈치챘고 이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언성을 높여 다퉜다고. /연합뉴스

中 대사관 직원 음주측정 거부

‘면책특권’ 밤샘 실랑이

주한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등 4명이 외교관 차량 번호판을 단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과 신분 확인 요구를 거부하며 밤새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외교관 번호판을 단 은색 쏘나타 차량의 탑승자 4명은 12일 밤 9시 50분께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근처 도로를 지나다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를 정면 거부, 13일 오전 6시20분까지 무려 8시간30분 동안 대치했다.

외교관 차량의 운전자는 주한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장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해 빈 협약에 규정된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거부,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금괴 변칙 거래 국고 2조원 샜다

검찰, 5개 조직 34명 체포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의 금괴)을 변칙 거래해 5천억대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은 금 도매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는 국세청과 검찰이 적발한 1999~2004년 탈세액을 합치면 2조원이 넘어 사상 최대의 탈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3일 금지금 수입·도매·수출업체를 설립한 뒤 변칙거래로 921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국가에서 되돌려받고, 다른 탈세 조직과 연계해 2천억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 조세포탈 등)로 심모씨 등 5개 조직 30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출용으로 거래되는 금지금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해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환급받는 방법으로 국고를 축냈다. 이들은 외국업체-수입업체-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로 이어지는 금지금 유통 순환고리에 부가세 포탈을 위해 만든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넣었다.

폭탄업체는 1차 도매업체에서 산 금지금을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2차 도매업체에게 팔면서 2차 업체에게 받은 금액 속에 포함된 부가세를 국가에 내지 않고 폐업하는 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연합뉴스

무등산 소나무 50여그루 잘려

무등산에서 나무 수십그루가 잘린 채 발견돼 관리사무소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무등산 도립공원 내 제 1수원지 부근 숲 속에서 약 30년 된 편백나무 50여 그루가 잘린 채 발견됐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6일 밤에 인기척이 느껴져 나가보니 6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인부들을 데려와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는 인근 토지 관리인의 말에 따라 나무를 자른 사람의 행방을 찾고 있다.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는 “허가없이 공원 내 나무를 자른 것은 자연공원법(제 23조 등)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나무를 벤 사람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